



양현종

훈련 앞둔 선수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챔스필드 덕아웃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브룩스

기약 없는 개막... 쌓여가는 고민

선수들 프로야구 개막일 맞춰 시즌 준비... 체력 관리 고민
투수들 예민한 컨디션 관리, 개막일 미정에 더욱 난감
KIA 양현종·브룩스 "훈련 열심히 하며 때 기다리겠다"

21~27일 자체 홍백전·연습경기

마운드가 KBO리그 초반 순위 싸움의 키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약 없이 출발한 탓이다. KBO리그는 3월 28일 2020시즌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각 팀의 선수들은 'D-데이'에 맞춰 스프링 캠프에서 부지런히 시즌을 준비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연달아 등장했

다. 코로나19로 시범경기가 취소되면서 국내 팀을 상대로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고, 정규시즌까지 연기됐다. 이날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선수들은 원점에서 시즌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준비 과정이 세밀한 투수들에게는 초반 성적은 물론 전반적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 셈이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NC 다이노스와의 개막 시

리즈를 책임질 예정이었던 양현종과 애런 브룩스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 시즌 초반 고전했던 양현종은 지난해에 비해 빠른 페이스로 시즌을 준비하면서 만반의 체력을 끝냈다. 브룩스는 정해진 1-3선발 중 제일 먼저 실전에 돌입하며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2월 23일부터 마운드에 등장한 브룩스는 지난 14일 캠프에서 4번째 등판이자 마지막 등판에서는 5이닝까지 소화했다. 그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고 9개의 탈삼진까지 뽑아내면서 동료들의 감탄사를 불렀다. 하지만 기다렸던 KBO리그 데뷔전이 미뤄지면서 새로운 데뷔전 플랜을 가동하게 됐다. 고민의 핵심은 아직 개막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

다는 점이다. 실전에 맞춰 스케줄을 다시 짜야 하지만 'D-데이'가 정해지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 실전에 맞춰 서서히 투구수를 끌어올리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만큼 투수들은 만만치 않은 시즌을 보내게 됐다. 너무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릴 경우 장기레이스(144경기)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페이스가 너무 늦을 경우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초반 분위기가 팀 전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투수들은 '타이밍' 싸움을 하게 됐다. 양현종은 "아직은 개막이 정해지지 않아서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난감하고 생각이 많겠지만 다른 팀 선수들도 마찬가지니까 핑계대지 않고

시즌 준비를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를 보였던 브룩스도 "스프링캠프 때 많이 던지는 것에 익숙한 스타일이다. 시즌 개막에 맞춰 준비한 것이다. 시즌이 늦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급처럼 계속 훈련을 하면서 팔과 하체 운동에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완급을 조절하는 두 투수와 달리 무조건 달려야 하는 이들도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4-5선발, 필승조 경쟁을 했던 선수들은 연습경기를 통해 어필 무대를 이어간다. 21~22일 연달아 홍백전을 치르는 KIA는 22일 휴무 이후 격일로 23·25·27일에도 자체 연습경기를 갖는다. 끝나지 않은 엔트리 경쟁은 계속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펜싱계 '코로나19 충격'

유럽대회 다녀온 3명 확진... 광주 서구청 소속 선수도 포함

한국 펜싱 여자에페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펜싱계가 충격에 빠졌다. 선수들은 이달 3일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그랑프리 여자에페에 참석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선수 8명 중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된 이들은 3명에 이른다. 첫 확진 소식은 울산에서 들려왔다. 17일 목이 아프다며 울산 선별진료소를 찾은 A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 태안으로 1박 2일에 걸쳐 여행을 갔던 B 선수가 뒤를 이었다. A 선수의 확진 소식을 접한 뒤 18일 태안 선별진료소를 들렀고,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 명단에 올랐다. 확진자 중에는 광주 선수도 있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 C 선수는 A 선수의 소식을 듣고 경기 남양주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C 선수와 동행한 다른 서구청 펜싱팀 선수와 코치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광주 자택에 격리 조치됐으며, 이상 증상이 나올 경우 다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 선수와 같은 방을 썼던 다른 선수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4명의 선수들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대한펜싱협회에 따르면 선수들이 숙소와 훈련 일정, 음료수까지 공유해 대표팀에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인원은 총 30명이다. 여자 에페 대표팀 8명 외에도 같은 대회에 출전한 남자 에페 대표팀 8명, 코치, 트레이너, 의무관계자 등 총 20명이 노출됐다. 헝가리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던 남자 사브르 대표팀도 검사 대상이다. 펜싱협회는 대표팀이 귀국하는 대로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또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상 없다'는 검사 결과지를 가져온 선수만 입촌을 허락한다고 밝혔다. 또 입촌 전 선수촌 헬스센터에서 개별 2차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며, 병원 치료가 필요한 선수를 제외하고는 선수촌에 있는 모든 선수·지도자들의 외출·외박이 통제된다. 광주 서구청 화정동 선수촌 숙소에서도 선제 조치로 숙소 전체 방역이 진행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리그 38년 역사 담은 공인구

낫소부터 아디다스까지
적용 기술·캐치프레이즈 다양



공인구는 선수들에게는 경기력의 중요한 부분이고, 팬들에게는 기념품 또는 추억의 매개체이다. 낫소에서 아디다스까지 1983년 한국 프로축구 출범 이후 K리그 공인구를 살펴본다. 1983년 한국프로축구 출범 이후 K리그 공인구는 ▲낫소, 스타 등 국산 브랜드(1983-1996년) 시대 ▲나이키(1998-2011년) 시대 ▲아디다스(2012년~현재) 시대로 나눌 수 있다. 1983년 슈퍼리그에서는 '낫소 SSC-5 88'를 공식 경기구로 사용했다. 한국 프로축구 최초의 공인구다. 이후 1996년까지 스타 'Highest', 'PRO Champion', 낫소 'Poker', 'Gemini' 등 국산 브랜드 축구공이 그라운드에 선보였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리그별 개념으로 개최된 '아디다스컵'에서는 아디다스에서 만든 'Etrusco Unico', 'Questra', 'Tricolore', 'Fevernova'가 사용됐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는 나이키의 경기구가 등장했다. '850 GEO'를 시작으로 해마다 'GEO

MERLIN', 'TOTAL', 'TOTAL 90 OMNI'가 공인구로 사용됐다. 2012년 K리그가 아디다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아디다스 시대가 막을 열었다. 2012시즌 발표된 'Tango 12' 이후 'Cafusa', 'Brazuca', 'Context15', 'Errejota', 'Krasava', 'Telstar18', 'Conext19'가 공인구가 됐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Tsubasa Pro'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올 시즌 공인구인 'Tsubasa Pro'는 수분 흡수를 막아주는 열전대 기술이 적용된 6개의 모노 패널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하이 화이트 폴리우레

탄 소재를 적용해 공의 내구성을 향상했다. 한편 2016시즌 공인구인 'Errejota'에는 팬 투표로 선정된 '너와 나 우리의 K리그'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공인구에 새겨지기도 했다. 2018시즌 공인구 'Telstar18'에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당시 'Telstar18'은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로도 사용되면서, 연맹이 훈련용 공인구 30개만 보유하고 있던 대한축구협회에 'Telstar18' 60개를 제공했다. 그리고 실제 온두라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의 두 차례 평가전에는 K리그 로고가 새겨진 공이 사용되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LPGA 투어도 '스톱'

다음달 개막 2개 대회 취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4월로 예정된 롯데렌터카 여자오픈과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 대회를 취소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취소된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은 4월 9일부터 제주도에서 2020시즌 국내 개막전으로 열리려던 대회였다. KLPGA 투어 2020시즌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에서 열린 효성 챔피언십으로 막을 올렸고, 이후 3월 대만에서 대만여자오픈을 개최한 뒤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으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만여자오픈이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데 이어 국내 개막전으로 준비하던 롯데렌터카 여자오픈도 열리지 못하게 됐다. 또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 이어 열릴 예정이던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스 역시 이달 초 취소가 확정됐고, 4월 세 번째 대회로 계획됐던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 역시 시즌 일정표에서 빠지게 됐다. /연합뉴스

'큰 손' 구단주들 '빈 손' 될라

코로나19 영향 빅리그 올스톱...59명 5주간 92조원 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주요 스포츠 리그 구단주들의 손해가 막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리그 경기 일정이 전면 중단되면서 경기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실제 스타 플레이어들이나 일부 구단주들이 홈구장 노동자들의 급여를 대신 내는 사례도 많았다.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케빈 러브가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기부했

고, 델러스 매버릭스 마크 큐번 구단주는 홈 경기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주요 리그 구단주들의 손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니다. 포브스가 주요 스포츠 리그의 '역만장자 구단주' 59명의 최근 5주간 자산 변화 추이를 집계한 결과 총 720억달러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92조 4000억원에 이른다.

가장 큰 손실을 본 구단주는 인도의 크리켓 리그인 인도 프리미어 리그 뭘바이 인디언스의 무케시 암바니로 그는 최근 한 달 사이에 185억달러(약 23조8000억원)를 잃었다. 암바니는 인도 최대 민영기업인 에너지 회사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 회장인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이 폭락하면서 자산의 32%가 사라졌다. NBA의 LA 클리퍼스 구단주 스티브 발머가 암바니 다음으로 큰 손해를 본 구단주로 지목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 출신인 빌 게이츠는 최근 한 달 사이에 136억달러를 손해 봤다. 그는 올해 초 보유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크게 올라 650억달러까지 자산이 늘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내리면서 현재 자산은 512억달러로 추산된다. /연합뉴스